

자본주의 이면 꼬집기... 일상적 사물 오브제화

September 25, 2017 | 함혜리 기자



대중문화의 아이콘을 이용해 자본주의 문화와 현대사회의 이면을 드러내는 작가 몰 매카시.



대량 소비사회의 일면을 일상의 평범한 오브제와 추상적 색면으로 표현한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자본주의 이면 꼬집기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두 명이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서울 상정로의 양대 화랑에서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다. 대중문화의 아이콘을 이용해 미국적 자본주의 문화와 현대사회의 이면을 꼬집는 작업으로 유명한 미국의 현대미술가 몰 매카시(72)는 국제갤러리에서 '컷업, 그리고 실리온, 여성 우상, 화이트 스노우'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열고 있다. 두 볼록 떨어진 갤러리 현대에서는 대량 소비사회의 일상적 사물을 단순평화한 회화작업을 통해 표현해 온 영국 개념미술의 거장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76)이 '올 인 올'이라는 제목으로 대규모 개인전을 열고 있다. 두 거장은 일흔삼이 넘은 나이가 무색하게 지지치 않는 작가적 열정을 과시하며 한국 전시를 위한 신작들을 공개했다.

●백설공주 등 대중적 아이콘 변형
몰 매카시는 지난 40여년간 신화, 고전동화, 혹은 백설공주와 같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아이콘에 대한 탐구를 지속해 왔다. 1937년 윌트 디즈니가 제작한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속의 순진무구한 백설공주 캐릭터는 작가가 줄곧 주목해 온 주제로 미디어가 욕망을 어떻게 상업화하는지에 대한 탐구다. 그는 도처에 깔린 형상을 차용하고 크기를 변

현대미술 거장 몰 매카시·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서울서 자존심 대결

형하거나 형상 자체를 파편화하는 방식으로 영웅적이거나, 반대로 비참한 인상을 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이를 통해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들이 늘 익숙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재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는 현상을 꼬집는다.

2012년 '몰 매카시·나인 드와브즈'전 이후 5년 만에 갖는 국제갤러리 개인전에서 매카시는 백설공주 인자 중에서 두상을 소재로 한 실리온 조각 작품을 두 가지 버전으로 보여 준다. 극사실로 표현된 흰색과 붉은빛의 대형 두상과 실리온 캐스팅 작업에 쓰이는 속 덩어리(코어)를 활용한 '스핀 오프' 작업이다. 매카시는 "통상 완성된 작품에서는 형태를 드러내지 않는 조각의 코어에서 추상적인 이미지를 발견하고 작품으로 확장시켰다"면서 "구체적인 형태는 없지만 코어에서 허구적 인물의 이면 혹은 그 내면에 존재하는 불분명한 시선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어를 활용한 매카시의 전락은 프랑스의 화가 프란시스 피카비아(1879~1953)의 작품 '여인과 우상'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신작에서도 발견

일상적 사물 오브제화

된다. K3에 전시되는 '컷업' 연작은 3D프린터로 제작된 조각의 신체 모형을 절단해 설치하거나 스캐닝 작업에서 추출된 이미지를 심플 크기로 프린트한 뒤 휘갈겨 쓴 글씨로 프린트 작업을 뒤 덮어 버린 것이다. 매카시는 "보기에 좀 끔찍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만연한 폭력성, 그에 대한 자각을 투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는 오는 10월 29일까지.

●"바쁜 현대인들 회화 보며 잠시나마 쉬어가길"
역시 5년 만에 갤러리현대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연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30여점의 회화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알루미늄 판에 선명한 색상을 안경, 책, 전구, 우산, 소파, 노트북, USB, 스마트폰 등을 온전하게 혹은 부분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50여년간 그가 관심을 가졌던 일상적 사물, 추상적 색면, 드로잉적인 선의 결합이 하나의 화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마틴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통하는 '유니버설 램프지'를 다루고자 대량생산되는 일상의 오브제를 선택했다"면서 "바쁜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들이

정지된 회화를 보면서 잠시나마 쉬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의 작업은 캔버스의 정중앙에 하나의 오브제를 그린 것, 안경이나 칫솔 등 오브제의 일부만을 확대해 그린 것, 세로로 그린 것, 여러 가지 물건들이 어우러진 것 등 다양하다. 그는 "임의대로 자유롭게 크기와 형태를 변형시키고, 과감하게 절단해 부분만을 그려 놓아도 감상자들은 자신이 지닌 기억과 정보를 동원해 많은 것을 본다"면서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일상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나 미국 예일대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한 마틴은 1960년대 개념미술과 미니멀리즘, 팝아트 등 실험적인 현대미술의 전성기를 경험하며 작업을 시작했다. 1966년 영국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테이밍턴 허스트, 줄리언 오피, 세라 루커스, 캐리 홀, 트레이시 에민 등 yB A(영국의 젊은 예술가)를 양성하는 데 기여했다. '영국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불리며 그는 2016년 영국왕실로부터 기사 작위도 받았다. 전시는 오는 11월 5일까지.

글·사진 함혜리 선임기자 hotus@seoul.co.kr